

선암사 불교 문화재 훼손 방지

관리 부실...팔상전·불조전 등 목조 건물 뒤틀려 유물들도 습기에 노출...대대적인 보수 서둘러야

한국 태고종 대표 사찰인 순천 선암사내 불교 문화재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대학 교수, 문화재 전문가들이 선암사 문화재 보수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팔상전, 불조전 등 목조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뒤틀리고 경내 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이 습기에 노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전남도 유형 문화재 60호인 선암사 팔상전은 목조 기둥이 바깥으로 기울었고 기둥과 건물 바닥 사이에 2cm 가량 틈이 생겨 전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 화장실 가운데 유일하게 문화재로 등록된 선암사 해우소도 목조 기둥이 심하게 부패됐고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불화들은 좁은 공간 탓에 서로 겹쳐 있거나 받

침대도 없이 바닥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재조사에 참가한 문화재 전문가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보관해야 할 유물은 많고 공간이 좁아 불화를 겹쳐 놓고 있는 등 순천시와 선암사가 협조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도 "문화재 관리에 허술한 부분은 순천시와 문화재청에 통보하겠다"며 "각계 인사들로 문화재 기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문화재 2천여점이 보관돼 있는 선암사는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구례 공설운동장 26일 준공

279억 투입, 관중석 5천석 규모
8월 결연도시 축구팀과 친선경기

구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지난 26일 준공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운젠시 생활체육팀과의 친선 축구 경기(사진)가 열렸다. 2005년 12월 착공된 공설운동장은 2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부석 등 5천석의 관중석과 400m 육상 트랙 8레인, 경기운영본부, 방송통신실 등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주경기장과 보조 축구장 3면, 다목적 구장 1면, 전천후 씨름장 및 인라인스케이팅장 각 1개소가 시설돼 있다. 구례군은 운동장 개장과 함께 초·중·고와 대학·실업·프로팀을 대상으로 적극



작은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고흥 도양읍 일반산단 지정 고시

2011년까지 5,400억 투입 중형 조선소 유치 탄력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대가 지난 26일 전남도로부터 도양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돼 중형 조선소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고흥군은 고흥 조선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조선사 및 금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응역에 착수, 지난 4월 전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 도양 일반 산업단지는 조선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중·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단지로 앞으로 3개 조선사와 2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2011년까지 5천3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양 일반 산업단지는 전체면

적 275만8천㎡(813만4천 평)에 산업용지 127만7천㎡(46.3%)를 비롯해 주택 용지 39만3천㎡(13%), 공공시설 용지 1천14㎡(36.8%) 등으로 조성된다. 고흥군은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실시 설계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 단지조성 완료와 동시에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가 입주해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팔마 경기장에 태양광 발전소 검토

일조량 풍부...건립시 年 127만 7,500kW 생산 가능

순천시 팔마 경기장에 대용량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를 방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팔마 경기장 주 관중석에 건립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팔마 경기장 관중석(2만 1천㎡)과 옥상(6천㎡), 진입로(6천㎡)에는 연간 발전량 127만 7천5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80억 원이 소요되고 준공후 10년간 가동하면 투자금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그러나 지방예산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단체, 일반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팔마 경기장은 일조량이 양호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발전시설이 관중석 지붕 역할을 해 비는 물론 태양도 가려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일조량을 3.5시간으로 가정하면 10년 1개월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사회·복지·장학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직원 판매부동산의 딱지 공고		
구분	소재지	면적
1	전남 순천시 팔마동	1,200㎡
2	전남 순천시 팔마동	800㎡
3	전남 순천시 팔마동	1,500㎡
4	전남 순천시 팔마동	900㎡
5	전남 순천시 팔마동	1,100㎡
6	전남 순천시 팔마동	700㎡
7	전남 순천시 팔마동	1,300㎡
8	전남 순천시 팔마동	600㎡
9	전남 순천시 팔마동	1,400㎡
10	전남 순천시 팔마동	500㎡
11	전남 순천시 팔마동	1,600㎡
12	전남 순천시 팔마동	400㎡
13	전남 순천시 팔마동	1,700㎡
14	전남 순천시 팔마동	300㎡
15	전남 순천시 팔마동	1,800㎡
16	전남 순천시 팔마동	200㎡
17	전남 순천시 팔마동	1,900㎡
18	전남 순천시 팔마동	100㎡
19	전남 순천시 팔마동	2,000㎡
20	전남 순천시 팔마동	100㎡